

이달의 문화행사

※ 상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양아람누리

2020 아람 월드클래식 시리즈
클라라 주미 강 & 손열음 듀오 리사이틀



일시 9. 6.(일)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두 연주자가 고양아람누리에서 듀오 무대를 갖는다. 이번 연주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매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직접 구성했다. 특히,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과 슈트라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는 몇 차례 외국 무대를 통해 그 호흡을 증명해온 만큼 이번에도 두 사람이 만들어낼 최상의 연주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2020 아람 월드클래식 시리즈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9. 10.(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리사이틀은 물론 4중주, 트리오-듀오 등 실내악, 협연까지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솔로 리사이틀로 돌아온다. 그가 이번에 다시 한번 선택한 작품은 베토벤 피아노 작품 중 가장 난곡으로 알려진 베토벤 3대 후기 피아노 소나타. 매해 무르익어가는 김선욱의 독보적인 매력을 만나보자.

새라세 ON 시리즈 5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템플'



일시 9. 12.(토)~20.(일)
※ 목~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세극장
입장료 전석 3만 원

세계적인 동물학자로 널리 알려진 '템플 그랜딘(Temple Grandin) 박사'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무대로 옮겼다. 새로운 감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스타일로 배우들의 움직임과 몸짓을 적극 활용하여 남과 다르게 세계를 바라보는 템플 그랜딘의 내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 작품이다.

유니버설 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여행'



일시 9. 18.(금)~19.(토)
※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5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입장료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인기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들을 모아 문헌속 단장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오네건' 하이라이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양문화재단과의 공동 기획으로 탄생한 '발레 춘향'은 2017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및 '안무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양시 문화예술축제
제6회 고양국제무용제



일시 9. 22.(화), 24.(목) 오후 7시,
9. 26.(토)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세극장
입장료 무료
예약및문의 고양안무가협회(010-5188-7624)
※ 9. 7.(월)부터 선착순

해외 초청작 없이 진행되는 올해 축제는 국내외 무용 전문 디렉터를 섭외하여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김설진, 이정은, 정영두 등 국내 대표적인 현대무용가들부터 손관중, 김영미 등 중견무용가 그리고 세계적인 발레무용가 김용걸의 안무작품, 태평무 명인 강윤나 선생의 전통창작춤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고양어울림누리

2020 아침음악나들이3
테이



일시 9. 24.(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입장료 전석 2만 원

부드러운 허스키 보이스, 명품 발라드의 품격을 보여주는 테이가 아침음악나들이 9월에 찾아온다. 2000년대 초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로 데뷔하여 안정된 가창력과 귀에 착착 감기는 멜로디로 발라드 가수의 계보를 잇고 있는 테이. 최근 뮤지컬 활동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테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한 매력을 더해가는 보컬리스트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테이가 준비한 멋진 무대를 기대해보자.